

第36回

서울特別市城北區議會
調査特別委員會會議錄

第1號

城北區議會事務局

日 時：1994年10月24日(木) 午前10時

場 所：小會議室

議事日程

1. 行政事務調査實施의件

審査된案件

1. 行政事務調査實施의件(委員長 提議)(繼續) 1面

(10時26分 開議)

○議事係長 鄭恩秀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調査特別委員會 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대한 敬禮가 있겠습니다. 전면의 國旗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國旗에대한敬禮)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吉泰 議事日程 第1項 行政事務調査 實施의件을 繼續하여 上程합니다.

그동안 여러議員님들께서 3個分野로 나누어 적극적인 調査活動을 벌여왔습니다. 또한 專門家에게 依頼하여 본 調査對象 建築物의 安全을 진단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은 各分野別 調査內容을 듣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蘇正煥委員 委員長님,

○蘇正煥委員 오늘 討論을 해야 되겠는데요. 각분야별로 調査 內容과 建築專門家에 의뢰한 안전진단, 檢査結果 나온 것을 토대로 하여 區廳關係 公務員을 本 會議에 출석시켜서 質疑와 答辯 過程을 거쳐 討論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음번 날짜 잡아서할 때 調査特別委員會에 區廳關係 公務員을 出席要求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吉泰 네, 우리 蘇正煥委員님께서 關係 公務員을 출석시켜 회의를 하자는 案이죠?

○蘇正煥委員 네.

○委員長 金吉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再請합니다」하는 이 있음)

三請 있습니까?

(「三請합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날짜를 언제부터 하면 좋을까요?

○蘇正煥委員 오늘이 月曜日이죠.

○金吉泰委員 오늘이 24日이죠.

27日이나 28日쯤하죠.

○羅光洙委員 27日로 하죠.

○委員長 金吉泰 그러면은 蘇正煥委員님께서로부터 區廳關係 公務員을 출석시켜 그동안 調査 內容을 토대로 質疑 答辯 時間을 갖은 다음에 討論하자는 動議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아까 三請까지 있었죠?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은 蘇正煥委員님께서 발의한 區廳關係 公務員 出席시키자는 動議는 성립되었음으로 바로議題를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날짜는 27日, 몇時경이 좋겠습니까?

○鄭昌萬委員 午後 3時요.

○委員長 金吉泰 오후 3時면 너무 늦지 않을까요.

○趙基燦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吉泰 네.

○趙基燦委員 時間을 午後3時로 하면 時間이 너무 짧지 않을까요?

○委員長 金吉泰 네. 너무 짧아요. 討論내지는 質疑答辯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짧아요.

○蘇正煥委員 午前에 하는 것이 어때요.

○委員長 金吉泰 午前에 한 10時30分쯤 하는 것이 좋지않을까요?

○鄭昌萬委員 區議員들이 時間計劃을 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과시간에 우리가 私的으로 일보고 5時면 5時, 6時면 6時로 해서 12時까지 하면 좋지 않습니까?

○委員長 金吉泰 우리도 그렇지만 관계 公務員들 문제도 있고 우리 바쁘다고 해 가지고 午後 늦게 시작한다는 것은 問題가 있죠.

○ト定安委員 時間을 정하는데 그날 討議事項이 어느정도 時間이 소요된 것인가에 대해서 執行部에서 說明을 해주시죠.

○委員長 金吉泰 제가요 現在 막연한 對答이 아닙니다.

현재 생각할때 상당한 陣痛내지는 質疑問答이 있을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所要時間이 상당히 必要로 하기 때문에 아마 시간을 여유있게 잡아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ト定安委員 시간이 한 10時間걸린다고 하면은 午前에 시작해야 하는 것이고,

○委員長 金吉泰 10時間이야 걸리겠어요.

○ト定安委員 서너시간 걸린다면은 2시나 3시에 괜찮은 것이고요.

○蘇正煥委員 職員들이 정말 성실하게 答辯을 해 가지고 빨리 끝날수 있겠습니까만은 여기서 質疑한 內容과 그 나오는 대답이 상충되고 이렇게 했을때에는 시간이 걸릴수도 있고 또 여기서 質疑한 內容들이 다양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각자 委員님들 갖고있는 意見, 質疑 內容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보면은 아무래도 時間이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요 時間的 余裕를 가지고 조금 시간이 남기는 것이 좋지, 오후 3時로 되어 버리면은 서로 그때는 시간 쫓기다 보면은 2時間 答辯, 2時間 質疑 이렇게 充分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羅光洙委員 오후 2시쯤 하면 좋겠어요.

○鄭昌萬委員 그때가면 시차변경시켜 가지고 12시까지 할 수 있는것이고요. 아까 委員長님 얘기하신 것처럼 公務員이 6시면 退勤을 하니깐, 그러면 우리가 그 範圍안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質疑 答辯이 불성실하고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밤늦게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委員長 金吉泰 그런데도 區廳의 자료가 여기에 도착을 한것으로 알고 있지만 다소 자료가 불성실하게 도착을 한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나 그렇지 않으면 關係 公務員들 퇴근 후에는 또 여러가지 接觸關係도 있고 각개 생활체육과에서 시행을 하다가 建築課로 넘어 왔기 때문에 여러가지 관계공무원들건도 있고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2시에 하는것이 제 생각 같아서는 좋을것 같은데요.

(「2시에 해요」하는 이 있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鄭昌萬委員 지금자료가 왔다고 그랬는데 자료를 1부씩 프린트해서,

○委員長 金吉泰 무슨 자료?

○鄭昌萬委員 지금 자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委員長 金吉泰 우리가 要求한 資料요, 지방서랄지 도면이랄지 이런 등등이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表現하기가 어렵습니다.

왜그러냐면 될 수 있으면은 書類를 여기 가지고 오지 않을라고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가지 관계철 일지 다등등해서 등록을 하고 별 짓을 다했어요. 지금 도착이 아직도 우리가 充分하게 研究를 할 수 있는, 調査할 수있는 資料가 現在까지도 未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알아 주시고 그러면 2시에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시에 하기로 하고 그러면 關係 公務員 누구누구를 어떻게 出席을 시킬것인지 討議해 주세요.

○羅光洙委員 지금 區民體育館이나 정릉북지관 해당 국과장과 '담당' 즉 말하자면은 監督官이랄지 擔當 이사사람들은 다 出席시켜야 될 줄 압니다.

○委員長 金吉泰 막연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趙基燦委員 委員長, 한 10分 停會하고 하죠.

○委員長 金吉泰 여기서 쉬세요. 정식회의니까요.

○羅光洙委員 生活體育課長, 建築課長, 建築課의 監督官, 또 市民局長, 總務局長, 都市整備局長, 이렇게 출시키셔야 되겠죠. 또 財産分野에 財務局長.

○委員長 金吉泰 감사실까지도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감사실은 어느 局 所管이예요?

(「감사실은 獨立이죠」하는 이 있음)

監査室長까지 오시라고 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ト定安委員 出席시키는데 어떠한 요령으로 하실건가요?

27日날 全員을 다 出席을 시킬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委員長 金吉泰 전원 출석시켜야죠, 마지막 아니까요.

○ト定安委員 그런데 會議를 效果의으로 하고 公務員들의 자기들 任務가 있기 때문에 2時부터 다 全員 出席시키려가지고 하나하나 質問에 나가는 過程에 해당 部署가 아닌 분들은 상당히 時間을 갖다가 대기할 그런 입장이 될겁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출시키려 시차별 出席 要求한다든지 하는 것도 檢討해야 할 겁니다.

○委員長 金吉泰 좋은 말씀입니다.

○蘇正煥委員 그런데 저희들이 하다보면 總務課면 總務課, 建築課 이렇게 분리 될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時間에 따라서 建築課해야 될 경우도 있고 財務課도 해야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나누어 지지않을까 싶어요.

한課, 한課 딱 딱 나누어 질것이 아니고,

○ト定安委員 그러니까 그런 事項을 公務員들에 중요한 임무가 따로 있는데 여기와서 出席에서 答辯하는 것도 중요한 任務중에 하나이지만은 效果的으로 運營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2時부터 시작한다고 해야 될 것 같으면은 6時라고해도 4時間 밖에 안됩니다.

4時間 동안에 우리가 質問하고 答辯을 들을 수 있는 것을 소기의 目的을 이룰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 時間이 촉박하다 이말이예요. 전부 公務員들 局・課長들하고 여러분들 입니다. 그러면은 계원들 또는 係

長들이 따라와가지고 資料 提示해 주기 위해서 많은 職員들이 여기 20名이상 오게 됩니다. 그분들의 입장도 생각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羅光洙委員 ト委員님 말씀, 公務員들을 便利한 쪽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 委員들은 우리 委員이 할 일하고 公務員은 몇명이 됐든 해당자는 다와서 하루, 아니라 이틀이라도 대기해서 委員들의 質問에 答辯을 해야할 義務가 있는데요 公務員들의 時間 便宜만 생각합니까?

○ト定安委員 羅光洙委員님 얘기에서 대단히 이해가 안되는 점이 있구만요. 公務員들의 便宜를 提供해 주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분리입니다.

公務員하고 우리하고 분리를 시켜놓고 생각을 한다면 것 같으면은 일이 안되는거죠. 城北區의 일을 하는거예요. 行政이나, 區議會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羅光洙委員 公務員 몇명이 오든간에 해당 公務員은 와야되고 時間은 우리가 필요한대로 쓸텐데요.

○委員長 金吉泰 ト定安委員님하고 羅光洙委員님 말씀에 상반되는 말씀이 약간있는것 같은데요.

○蘇正煥委員 제가 말씀드릴게요.

○鄭昌萬委員 5分만 停會해서 하죠.

○委員長 金吉泰 이것을 끝냅니다. 잠깐이면 되니까요.

○蘇正煥委員 우리가 效率的으로 能率的으로 하자는데는 同意합니다. 그러나 區廳에 어떤 편의적인것, 그 사람들이 오면 이러한 애로 사항, 이런것을 내세워 가지고 배려한다는 것은 좀 모순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한 사람이 答辯에서 충분히 했으면 된 것이고 두사람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能率的으로 效果를 얻을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4時間 8時間 또 이틀이면 이틀 會議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소기의 目的을 달성하고 이것도 區廳에서 보는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능하다면은 우리가 效率的으로 會議를 進行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이 말씀입니다.

○ト定安委員 그러니까요, 제 말씀은 羅委員

님 말씀이나 蘇正煥委員 말씀이나 똑같은
脈에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本委員의 意見은
公務員들의 어떠한 편의를 提供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公務員들을 出席시켜놓고 한20
名 이상 출석시켜놓고 짧은 時間에 會議을
하다보면 非能率的이 아닌가 하기때문에 공
무원들을 출석시키는 것을 시차로 해서 효
과적으로 할 수 있는 方法을 모색할 수
있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을 提示하는
것입니다.

○委員長 金吉泰 알았습니다.

○卜定安委員 무슨 오해하고 그런 얘기를
합니까?

○委員長 金吉泰 제가 대안을 내놓을 테니
까,

○卜定安委員 이런 會議을 할때는 반드시
일방적인 생각으로 간주해가지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蘇正煥委員 지금 卜委員이 말씀하신 것은
區廳에 배려를 하자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委員長!」하는 이 있음)

(場內騷亂)

○委員長 金吉泰 조용하세요. 趙基燦委員님
말씀하세요.

○蘇正煥委員 卜委員님이 區廳에 배려하자는
의미를 말씀드릴게요. 區廳도 우리 區民을
위하는 곳인데 時間을 일방적으로 뺏어야
되겠느냐, 우리가 일방적으로 時間을 뺏자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 出席시키는 사
람들 정해놓고 우리가 구체안을 만들면 됩
니다. 만들면 되는데, 卜委員님이 그런 구
체안을 만들자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區廳에 公務員들 그 사람들 時間
뺏기면 어떻고 이런 이야기는 필요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곧 배려를 하자는 의미
지, 배려하자는 의미지, 배려하자는 의미가
아니면 뭐예요. 그런 뜻이죠.

○卜定安委員 蘇委員님, 幹事立場에서...

○委員長 金吉泰 잠깐만요, 말씀을 發言權을
얻어서 하세요.

○蘇正煥委員 예.

○委員長 金吉泰 여러분들 말씀도 다 좋은
데, 委員長 立場에서 제가 대안을 내놓을테
니가 여러분들 同意증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蘇正煥委員님, 羅光洙委員님 다 좋은

말씀이고, 卜定安委員님도 다 좋은 말씀이에
요. 그런데 이런 사소한 것을 가지고 성질
을 내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래서 중요한 부서인 建築課, 都市整備局 傘
下를 2시에 정식으로 會議에 出席을 시켜
서 거기에 質疑 答辯을 듣고, 監査室하고
生活體育課를 3시에 出席을 시켜서 말하자
면 質疑 問答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 같네요.

○羅光洙委員 委員長님, 建築課하고 都市整備
課가 主 目的을 갖고있는 部署인데 1時間
밖에 안되는데,

○委員長 金吉泰 아니, 1時間으로 끝낸다는
것이 아니죠, 시차를 두고 출석시킨다는 거
죠.

○羅光洙委員 그러면 시차두고 하되, 하더라
도 建築分野에 소관된 局 課長은 우리 會
議가 끝날때까지 계속 하면서,

○委員長 金吉泰 그럼요. 당연한거죠.

○羅光洙委員 生活體育課나 監査室은 필요시
에 불러서 質問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죠?

○委員長 金吉泰 예. 유종의 미를 거뒀야
지, 그렇게 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卜定安委員 그러면 제가 發言하겠습니다.

말하자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시 제
말씀에 대한 취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
겠습니다. 지금 현재 金吉泰委員長님 말씀마
따나 똑같은 내용입니다. 즉 말하자면 우리
는 效果的인 會議을 하면서 目的을 달성하
기 위한 것은 가장 經濟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方法을 研究해 주십사 하
는 建議을 드리는 말씀이지 그 어떤 편을
갖다가 便宜를 봐준다는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얘기했던 것은 결코 아니고, 다만
듣는 분들로 하여금 그렇게 곡해하는 생각
을 가지고 계셨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시
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金吉泰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는게 좋겠죠?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委員長 金吉泰 그렇게 하십시오.

○金榮植委員 整備局이 몇시요?

○委員長 金吉泰 정각 2시에 出席시키는
거죠.

○金榮植委員 그 다음에 監査室하고 生活體

育課하고,

○委員長 金吉泰 3時쯤 출석시켜서, 市民들이니까,

○趙基燦委員 委員長님, 저 發言權 좀 주십시오.

지금 현재 사실상 都市整備局을 時間을 딱 정해놓을 수 있는 事項은 아니라고 봅니다. 都市整備局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딱 時間을 정해놓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委員長 金吉泰 아니, 시간이 오버가 되면은 계속하는 것이지, 시간을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趙基燦委員 그러니까 지금 委員長님 말씀은 몇 시에서 몇 시까지 都市整備局 建築課나 이런 것 아닙니까?

○委員長 金吉泰 그게 아니죠. 이해를 못하셨습니다. 生活體育課하고 監査室만 3시에 出席시키고 時間制限은 없습니다.

○蘇正煥委員 委員長님, 제가 하나 제안할게요. 이렇게 하죠. 2시에 全員 參席시켜놓고 그때 우리가 時間 배분을 나름대로 잘 것 아니겠습니까? 會議을 원만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그 사람들 시간대를 정해주시죠?

○委員長 金吉泰 그러면 이 문제는 저한테 위임해 주시죠. 제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어떻습니까?

○羅光洙委員 委員長님, 行政府가 監査院 監査를 받든가 國政監査를 받든가 할 적에 보면은 우리가 텔레비전으로 자주 보지만, 時間이나 인원숫자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地方議會는 꼭 時間과 숫자를 정해가지고 해야 됩니까?

○蘇正煥委員 경우에 따라서는 와서 答辯한 번 못하고 오는 수도 있어요.

○委員長 金吉泰 그러면 제가 애기한 내용에 대해서 못받아들이겠다 그 말씀이죠?

(「예」하는 이 있음)

그냥 2시에 全員 다 出席을 시키자 애기죠. 關係公務員들,

(「예」하는 이 있음)

○趙基燦委員 委員長! 의회주의 원칙이 무시된 發言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지금 發言하는 것이 의회주의 원칙을 무시한 發言들이 나오고 있어요. 원

칙이 아니에요. 좌우관 公務員들이 반드시 議會에서 필요해서 소집할 때는 당연히 와야죠. 公務員의 業務를 公務員들이 바쁘고 일이 중복되고 하니까, 公務員 便宜를 주기 위해서 우리 議會가 議會를 변칙적으로 진행시킬 수는 없습니다.

○委員長 金吉泰 아니 변칙적으로 進行한다는 것이 아니고, 效果的으로 運營을 하는데 있어서는 일찍부터 出席시켜서 關係公務員들 일하는 데 약간의 방해를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뜻에서 卜定安委員長님이 말씀하신 것이지,

○羅光洙委員 그러면 行政調査를 안하면 될 것 아닙니까?

○委員長 金吉泰 이해를 하면 되요.

○韓春子委員 委員長님, 지금 다 좋은 말씀하시는데요. 궁극적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調査特委를 하는 자체가 우리 城北區를 위하고 우리 구민을 위하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할 것 같으면, 아까 蘇正煥委員長님 말씀하신 것은 公務員이 議會에 出席해서 業務를 擔當한 이 중요한 業務를 보나 區廳에서 보나 같은 말씀이라고 인정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 또 卜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時間을 效率的으로 쓰기 위해서 公務員들을 미리 다 오시라고 하지말고 순서대로 불러다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시자는 뜻이 거기에 內包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조금 보이지 않게 서로가 갈등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都市整備나 建築에는 時間이 많이 요할 것 같고, 또 감 사실 같은 데는 우리가 궁금한 것을 물어 보는 정도기때문에 그렇게 큰 時間을 요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긴 時間을 요하는 것을 먼저 놓고 전부 質問 答辯을 받으시고, 가다가 개중에 監査室에 물어볼 게 있을 때에는 메모를 해놓고 그 때 오라고 해도 늦지 않지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羅光洙委員 그러시다면, 지금 韓春子委員長님 말씀대로 처음에 議事進行을 그렇게 유도를 해주셨으면 더 좋은데, 우리가 國政監査나 여러가지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면서, 또 우리도 같은 地方議會라고 같이 會議을 하면

서 어떠한 公務員에게 卜委員님이 偏狹의로 말씀하셨다가 보라도, 우리가 할일만 하면 되는 것이었지 뭐 꼭 公務員들을 우리가 미워서가 아닙니다. 일단 우리가 할일을 하기 위해서 다 出席시키자는 의미지 다른 의미가 없어요.

○韓春子委員 卜委員도 公務員을 편협하게 할려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趣旨를 똑똑이 듣는다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金榮植委員 委員長님, 조금 전에 말씀한 委員長님의 公務員 出席時間, 都市整備局長님 부터해서 하고 그 時間차이를 두고 그 다음 다른 局長들을 오도록 해서 하죠? 자꾸 甲論乙駁 같은 얘기인데,

(「예」하는 이 있음)

이것을 가지고 똑같은 얘기해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러니까 都市整備關係者만 먼저 하고, 한시간동안 質疑하고 그다음 3시부터...

○委員長 金吉泰 우리 金榮植委員님의 말씀에 同意를 해주세요.

羅委員님 이해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蘇正煥委員 제 생각은 이렇거든요. 각 分野別로 있는데 建築分野 質問하다가 建築分野에서 監査分野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財務局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즉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建築課 1時間 전에 해놓고 다음 대에 재무국시켜놓고 한 2時쯤에 質問이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런 內容이 어떻게 확인할 겁니까?

바로 그 분야를 놔둔 상태에서 각자 확인 받아가면서 이렇게 해서 質問이 나와야지 答辯이 나오지...

○委員長 金吉泰 메모를 했다가 나중에 물어봐도 되니까,

○韓春子委員 委員長님, 잠깐만요. 말씀 끝 나셨습니까?

왜냐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물음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과연 어떻게 물을 것인가 원칙에 의해서 묻는 것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막연하게 그 자

리에다 局 課長님들 모셔놓고 散發의로 묻는다면 밤을 새도 이 會議를 끝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물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도 效率的으로 무엇을 누가 어떻게 물을 것인가도 구체적인 얘기를 해야 됩니다.

○委員長 金吉泰 그 問題는 아직 얘기하지 마세요.

○申晉玉委員 저도 한마디 합시다

○委員長 金吉泰 말씀하세요.

○申晉玉委員 지금 公務員 出席問題가지고 意見이 상당히 분분하신데, 지금 卜委員님도 같은 제한 時間內에서 생산적이고 효과적으로 會議 運營을 진행자하는 그런 뜻인데, 뭐가 조금 표현의 차이에서 약간의 그런 것이 있는 모양인데, 일단은 公務員 出席을하기로 決定이 났으니, 시차로 무조건 우리가 양보다 질을 택하기 위해서는 우리 委員님들이 그만큼 많이 공부를 해야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質問을 하기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했을 때, 公務員들을 시차적으로 출석을 하는 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委員님들을 볼때도 상당히 우리가 그마만큼 研究했다는 것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면 公務員들도 성실한 答辯을 할 것이고 그런 거니까, 양보다 질을 선택하는 쪽으로 나가서 運營의 묘를 살리는 뜻에서 生産的으로 會議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蘇正煥委員 제가 딱 하나만 얘기할게요.

○申晉玉委員 그래서 委員長님 뜻이 상당히, 또 우리 金榮植委員님도 말씀하신 게 그런 방향이 상당히 좋겠네요.

○蘇正煥委員 한가지 얘기하면요. 이번 마지막 얘기하고 안할립니다. 우리가 지금 調査 特委를 하는 것은 소기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고 있거든요. 각 部署別로 배석시켜놓고 우리가 質問 答辯 받는 것이 낫겠습니까?

각자 한시간 시간대로 놔두고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委員長 金吉泰 그 問題는 이따 토론시간에 별도로 얘기를 해야지 지금 얘기를 해요. 출석범위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蘇正煥委員 아니, 출석범위가 중요하기 때

문에 말씀 드리는 거예요.

○委員長 金吉泰 아니 그러니까 토론 문제는 이따 얘기하는 거고,

○蘇正煥委員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둘아가면서 質問하면서 答辯을 얻어내야지, A라는 사람이 위증할지 B라는 사람이 위증을 할지 어떻게 압니까? 위증할 때 바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될게 아니겠습니까?

○委員長 金吉泰 아니 출석범위만 여기서 會議를 끝내고, 잠깐좀 주세요. 討論의 問題는 별도로 우리가 懇談會에서 얘기를 해야지 거기까지 확대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출석범위는 우리 金榮植委員님이 말씀하신대로 여러분들 다 동의하시죠.

(「예」하는 이 있음)

○蘇正煥委員 반대입니다. 저는.

○委員長 金吉泰 반대예요?

○蘇正煥委員 예, 우리가 運營의 묘만 살리면 되는 거예요. 2시에 全員 소집시켜놓고

○申晋玉委員 幹事입장에서...

○蘇正煥委員 幹事는, 申委員 그런 소리하지 말아요. 우리 區廳職員들한테 뭐 이미지, 지금 이미지때문에 하는 겁니까?

○羅光洙委員 아니, 감사실이나 生活體育課나 한 시간 먼저 왔다고해서 또 뭐가 어떻습니까?

○蘇正煥委員 우리가 그렇게 區廳職員들한테 한시간 정도 배려했습니까?

○羅光洙委員 한시간 배려해서 무슨 큰 인심얻습니까? 뭐합니까?

○蘇正煥委員 그 사람들 한시간 시간 뺏겨가지고 얼마만큼 區廳에 손해끼칠게 있습니까?

○卜定安委員 딱한 양반들 딱한 말씀들 하시네요.

○羅光洙委員 뭐가 딱해요.

○蘇正煥委員 우리가 運營의 묘만 살리면 되는 거예요. 2시에 出席시켜놓고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 몇 시에 오라고 시간을 정해놓고, 또 각자 合席을 시켜놓고 우리가 答辯을 받는 것이 효율적이고 능률적이지 각자 따로따로...

○委員長 金吉泰 앉으세요. 왜 서서 그러세요. 잠깐 會議를 효율적으로 運營하기 위해

서 한 10분간 停會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停會를 宣布합니다.

(10時55分 停會)

(11時07分 續開)

○委員長 金吉泰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意見을 많이 제시해주셨는데 참석 범위는 거기에 대한 모든 부서의 관계되는 公務員 그리고 출석시키는 會議는 2시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 動議에 대하여 意見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關係公務員을 출석시켜 行政事務 調査를 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異議 없으시면 可決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시면 지난 21일날 사전에 調査特別委員님들에게 (비파괴)검사내지 강도검사를 한다는 통보를 해서 全員 우리 委員님들 참석을 해서 조사한 내용을 서로 檢討하고 研究하고 이렇게 지켜 봤으면 좋았을 텐데 研究員들 내지는 조사 감사하는 교수 내지는 요원들이 시간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사전에 연락을 못하고 그날 아침에야 연락을 했어요. 21일날 아침에야 연락을 했기 때문에 상당한 우리 委員님들께서 參席을 안 해주셨는데 오전에는 羅光洙委員님하고 黃義揮議員님이 잠깐 얼굴 비치고 그냥 가시고 羅光洙委員님이 조금 거기서 지켜봐 주셨고 제가 연락을 못받았기 때문에 오후에 權赫騏委員님하고 저하고 4時까지 같이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고 사진찍는 것을 보고 또 (비파괴)검사, 강도검사 하는 내용을 다 보고 또 벽돌 2장을 샘플을 채취해갔어요. 벽돌검사를 별도로 하는 것으로 해서 建築課長님이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얘기하고 검사한 것을 보고 그래가지고 결과가 내일 나온답니다. 내일.

(「아직 안 나왔습니까?」하는 이 있음)

아직 안 나왔어요. 내일 시간은 언제 나올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27일날 하게되

면 그 結果를 여러委員님들께서 알게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鄭昌萬委員 그 結果를 말이죠. 27일날 會
議 전에 그날 많이 참석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 어떻게 프린트해서라도
주든지 方法이 없습니까?

○委員長 金吉泰 이를간이라는 期間이 있기
때문에 편지로 우송하기는 시간적인...

○鄭昌萬委員 그러면 議會에다가 해나가지고
와서 불사람들은 찾아서 보든지 프린트해가
서 보든지 그러한 方法으로 해주셨으면 좋
겠습니다. 왜냐하면 참석 못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結果하고 그때 당시 우리 委員
長님이 참석을 못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하고 그 때당시 우리 委員長님이
참석을 오전, 오후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대강 그날 봤을때 이 부분을 어떻게
됐다는 그런 얘기도 없었습니까? 그 때
당시에

○委員長 金吉泰 그러시면 일단 정식회의는
論議가 끝났으므로 散會를 하는 것으로 하
고,

(「委員長님」하는 이 있음)

가만히 계세요. 懇談會로 들어가겠습니다.

○羅光洙委員 散會하기 전에 아까 關係公務
員이라고 그랬는데 出席公務員들 關係公務員
을 명시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委員長 金吉泰 당연히 하죠.

○羅光洙委員 出席公務員 숫자가 안 들어가
있어요.

○委員長 金吉泰 거기에 관계되는 公務員
일체입니다.

그러면 異議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會議가 끝났으므로 散會를 宣布합
니다.

(11時12分 散會)

○出席委員 10人

金 吉 泰	蘇 正 煥	金 榮 植
羅 光 洙	卜 定 安	申 晉 玉
李 三 田	鄭 昌 萬	趙 基 燦
韓 春 子		

○缺席委員 2人

權 赫 騏	黃 義 揮
-------	-------

○參席專門委員

專 門 委 員	宋	鍊
專 門 委 員	崔 石	根